

완주서 지역먹거리 생산자-수요자 소통 교류회

바이오진흥원, 학교급식 현장·지역가공업체 간 실질적 소통의 장 열려

(재)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원장 이은미, 이하 바이오진흥원) 전북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이하 전북센터) 주관하고 전북특별자치도청, 완주군청, 완주공공급식지원센터, 완주교육지원청이 함께 협력한 지역가공먹거리 생산·소비 소통 교류회가 남원 군산에 이어 지난 10일 완주군 가족문화 교육원에서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지역에서 생산된 가공식품이 학교, 복지시설,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등 다양한 급식 현장에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급식 담당자와 가공업체가 직접 만나 소통하고 상호간 이해를 넓히기 위해 마련됐으며, 단순한 제품 소개를 넘어 지역 식재료가 급식 식탁에 오르기까지의 고민과 과정을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전북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지역가공먹거리 생산·소비 소통 교류회 가 남원, 군산에 이어 지난 10일 완주군 가족문화 교육원에서 개최됐다.

또한 완주군 내 유치원부터 고등학교의 영양교사·영양사 및 어린이집, 공공기관, 복지시설의 급식담당자 등 50여명과 더불어 2025년 완주군 학교급식에 지역가공먹거리를 공급 중인

24개 업체의 관계자들도 참여해 제품을 소개하고, 현장의 요구사항과 의견을 직접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참가자들은 시장과 시식을 통해 제품의 품질을 직접 확인하고 실제

현장에서의 활용 방안에 대해 깊이 있는 의견을 나눴다. 이러한 경험은 가공업체에게는 제품 개선의 기회로, 급식 담당자에게는 신뢰 확보와 선택의 폭을 넓히는 계기로 작용했다.

한편 바이오진흥원 전북센터는 도내 160여개 가공업체 제품 정보를 수집해 학교·공공급식을 통합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있으며 해당 DB는 각급 학교와 공공기관에 제공되어 지역가공먹거리 공급을 활성화하는 기반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바이오진흥원 이은미 원장은 “오늘과 같은 교류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생산자의 노력과 정성이 존중받는 자리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지역가공먹거리가 공공급식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지속가능한 지역 먹거리 생태계를 함께 만들어가겠다.”라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전북농협은 금마농협 로컬푸드복합문화센터에서 지역내 농업인, 주민에게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농촌 왕진버스'를 진행했다.

‘농촌 주민 대상 온열질환 예방 대비 마련’

전북농협, 여름철 폭염 대비 ‘농촌 왕진버스’ 운영

전북농협 총괄본부장 이정환(은 지난 10일 금마농협(조합장 백낙진) 로컬푸드복합문화센터에서 지역내 농업인, 주민에게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농촌 왕진버스’를 진행했다.

농촌 왕진버스는 농협과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가 함께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의료인프라가 부족한 농촌을 찾아가 양·한방진료, 치과, 구강검사, 근골격계 질환 관리, 검안 등 질병관리 및 예방교육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농

촌지역 의료 공백을 메우는 사업이다

전국적으로 여름철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요즘 전북농협은 농촌 왕진버스 의료진들과 협력하여 농업인들에게 폭염 대비 농업인 안전수칙, 온열질환 발생 시 진단 및 응급처치 방법 등을 안내하고 탈진 예방 및 기력 보충을 위해 원광대학교 한방병원에서 제공한 한방음료인 한라맥을 전달하면서 여름철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에 최선을 다했다. /오상근 기자

농촌진흥청, 폭염 속 낙농가

사양관리 점검·예방책 논의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임기순 원장은 지난 10일 경상남도 창원군 대합면에서 있는 젖소농장을 방문해 폭염 대응 실태를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들었다

이번 방문에서 임 원장은 여름철 폭염에 대응하는 낙농 현장의 실태를 파악하고, 젖소의 생산성 저하와 건강 악화를 최소화하는 예방책 등을 논의했다

또한, 현장에 설치된 송풍 팬, 안개분무기, 차광막 등 고온기 대응시설 운영 현황을 확인하고, 사양 또는 번식 관리 과정에서 주의할 사항 등에 대해 농가와 의견을 나눴다

임 원장은 “여름철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는 젖소의 식욕 저하와 산유량 감소 등 고온 스트레스 피해가 커질 수 있다.”라며, “송풍팬, 안개분무기, 차광막 등 기본 시설을 적절히 가동하고 축사 내부 온도를 철저히 관리해 더 큰 피해를 막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폭염 일수 증가로 젖소의 생산성 저하가 발생할 수 있고 이는 농가 소득 감소와 직결되기 때문에 사전 대비와 세심한 사양관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며, “농촌진흥청은 축산농가 피해 최소화를 위해 현장 기술 지원단을 운영하고 폭염 대응 관련 정보를 지속해서 제공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저장기술 현장 적용 확대’ 여름철 배추 수급 사전 점검

농진청, 충북 보은거점산지유통센터·장성 정부 비축기지 현장점검

농촌진흥청은 시에이(CA)저장고, 엠에이(MMA) 기술 등 저장 기술을 현장에 확대, 적용해 여름철 배추 수급 안정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관재한 농촌진흥청장은 지난 10일 충북 보은거점산지유통센터(APC)를 찾아 능동형 시에이(CA)저장고 도입 현장을 둘러보고, 보급 과정에서 생긴 어려움과 개선점을 논의했다

능동형 시에이(CA)저장고는 저장된 농산물의 생리적인 특성을 자동으로 감지해 산소와 이산화탄소 농도를 제어하는 2세대 시에이저장고이다

최근 이상기후로 농산물 수급이 불안정해지면서 이를 완화할 방안으로 능동형 시에이(CA) 저장 기술이 주목받고 있다. 특히 봄배추를 장기 저장해 여름철에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여름철 배추 수급 안정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은 2024년 개발 보은거점산지유통센터에 설치한 능동형 시에이(CA)저장고에 지난달 10일 봄배추를 입고했다. 앞으로 3개월 동안 저장 중 신선도를 실증할 계획이다.

이곳에 저장된 봄배추는 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이티, aT)가 정부 수매로 확보한 약 69톤과 민간업체 3곳에서 각각 7톤씩을 제공해 모두 90톤이다

관재한 청장은 “대형 유통센터에서 이용하던 외국의 시에이(CA) 저장 기술은 높은 설치비, 유지보수의 어려움, 국내산 농산물과의 물성·생리 특성 차이 등으로 농업 현장에 적용하기가 어려웠다.”라며 “이를 보완해 국립농업과학원에서 개발한 국산 능동형 시

에이(CA)저장고의 현장 보급에 속도를 내겠다.”라고 약속했다.

이날 권 청장은 전남 장성으로 이동해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 개발한 ‘수확후관리 통합(패키지) 기술’을 적용, 봄배추를 저장하고 있는 정부 비축기지 현장을 점검했다.

수확후관리 통합 기술은 예비 냉장·예비 건조, 엠에이(MA) 필름 포장, 저온저장을 결합한 것이다. 이 기술을 적용하면 기존 방식보다 저장기간이 2배 이상(80~90일) 늘어 6월 수확한 봄배추를 9월까지 신선하게 저장할 수 있다.

엠에이(MA) 필름은 선택적 가스 투과성이 있는 필름을 활용하여 포장 내부의 산소, 이산화탄소를 조절하고, 중량감소(증산)를 억제해 저장성을 높이는 기술이다.

/오상근 기자

중기중앙회 사용자위원, 내년 적용 최저임금 합의

중소기업중앙회 사용자위원은 금일 최저임금위원회가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을 올해 대비 2.9%(290원) 인상된 시급 1만320원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각자의 입장을 일부 안보하고 조율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하며 이뤄진 합의의 결과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면한 복합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노사가 기존의 갈등을 반복해선 안된다고도 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사용자위원은 지난 10일 입장문을 내고 “경영계는 그동안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영

난을 감안해 최저임금 동결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그러나 내수침체 장기화로 민생경제 전반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고심 끝에 이번 최저임금 결정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합의 과정에서 소상공인연합회 위원들의 강력한 반대대로 진통을 겪었으나, 결국 대승적 차원에서 합의에 이르렀다. 경영계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결정이었으며, 이에 따른 부담과 책임을 두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중기중앙회, 남북경협 재개 논의 환영 입장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11일,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남북경협 재개에 관해 논의한 것에 대해 기대가 크며 환영 입장을 내걸었다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NSC에서 남북경협 재개 가능성까지 폭넓게 논의된 것은 새 정부가 한반도 평화 정착과 남북관계 정상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되며 재개공단은 남북 경제협력의 상징으

로,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지리적으로 가까워 중소기업들에게 해외 진출보다 협업과 생산 측면에서 유리한 환경을 갖춘다고 했다

끝으로 “이번 NSC 논의를 계기로 남북경협의 물꼬가 트여 개성공단이 하루빨리 재가동되기를 바라며, 중소기업계는 남북경협 재개와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

